이란전 앞두고 첫 전술훈련 돌입…최강희호 수비라인 불꽃경쟁 스타트

중앙수비 경쟁, 곽태휘 체력이 변수

철벽수비, 이란원정 첫승 위한 선결 과제
정인환·김기희 중앙수비 주전 호시탐탐
박주호·윤석영-오범석·신광훈 측면경합

진짜 훈련은 이제부터다. 이란과의 2014브라질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4차전 원정(17일 오전 1시30분)을 위해 테헤란에 입성한 최강희호는 11일부터 본격 훈련을 시작했다. 태극전사 전원이 모였다. 곽태휘, 이근호, 김신욱, 김영광 등 울산 소속 4인방이 10일 합류한데 이어 11일 김영권(광저우)이 마지막으로 도착해 풀 전력이 갖춰졌다. 컨디션 조절을 위해 비교적 가볍게 진행됐던 앞서 이틀간의 훈련과는 달리 전술 훈련이 본격화됐다. 생존 싸움과 더불어 포지션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최강희 감독은 공격과 중앙, 수비진까지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 최상의 라인업을 구상하겠다는 복안이다.

●뒷문 튼튼해야 앞문도 든든

최 감독은 K리그 전북 현대를 이끌었을 때 화끈한 공격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어지간해선 물러섬 없는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닥공(닥치고 공격)축구'라고 불렸다. 하지만 전북이 강공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디펜스의 안정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이는 대표팀도 마찬가지다. 9월 우즈베키스탄부터 10월 이란으로 이어지는 원정 2연전을 앞두고 최 감독은 "소극적인 플레이보다 함께 받아쳐야 찬스를 엮을 수 있다"며 "어설프게 2경기를 모두 비기느니 한 경기라도 확실히 이기는 게 낫다"고 했다. '닥공' 기조를 잇겠다는 일종의 선언이었다. 물론 그 뒤에는 안정된 수비진 구축이 전제된다.

수비진엔 비상이 걸린 상태다. 가운데부터 좌우 측면까지 바람 잘 날이 없다. 황석호(히로시마) 박원재(전북) 등이 부상으로 빠지고 새로운 얼굴이 채워졌다.

왼쪽풀백 경합중인 박주호(왼쪽)와 윤석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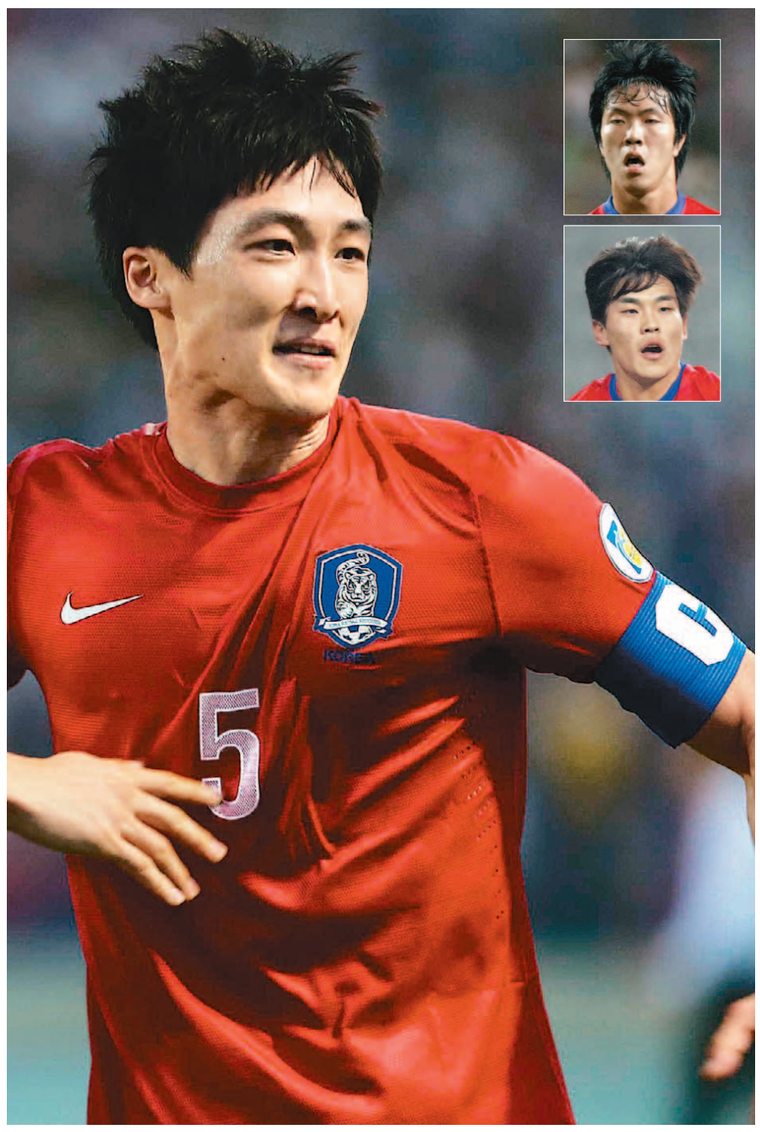
오른쪽풀백 경쟁중인 오범석(왼쪽)과 신광훈

중앙 수비의 경우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 이란 원정에서 제외된 이정수(알 사드)를 대신할 주인공부터 찾아야 한다. 이름값만 보면 주장 곽태휘와 김영권의 출격이 유력해 보이지만 정인환(인천) 김기희(알 사일리아)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특히 곽태휘는 소속 팀과 대표팀을 오가는 살인 일정 때문에 컨디션이 다소 떨어져있다.

측면 풀백도 고민거리다. 왼쪽은 윤석영(전남)이 한발 앞서 있는 가운데 경험이 풍부한 박주호(바젤)도 만만치 않다. 오른쪽은 오범석(수원)이 신광훈(포항)과 경합하지만 오래 전부터 '최대 불안' 포지션이다.

골키퍼도 예외는 아니다. 정성룡(수원)이 유력한 가운데 김영광(울산)도 최근 신들린 듯한 방어력을 뽐내며 강력하게 추격하고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이란 원정 경기를 앞둔 최강희호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최적의 수비진 구축이다. 곽태휘(큰 사진)의 체력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김영권(작은사진 위)과 김기희(아래)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스포츠동아DB

리버풀 187억 준비…손흥민 주가폭등

ESPN "수아레스 뒷받침 할 재목 관심"
함부르크 단장 "손흥민 계약연장 희망"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20·함부르크)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11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몇몇 클럽들이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 리버풀이 1050만 파운드(187억여 원)를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리버풀은 팀의 간판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25)를 뒷받침할 재목으로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

리버풀 영입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영국 스포츠매체 코트오프사이드를 통해 800만 파운드(142억여 원) 이적이 제기됐다. 영국 유력언론 데일리메일도 10일 리버풀의 관심을 재차 확인하며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적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어린 선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리버풀 같은 빅클럽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거액을 집행할 수 있다. 구단이나 에이전트 측에서 손흥민을 환기시키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손흥민과 가까운 지인은 이적설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손)흥민이가 아직 시즌 내내 고른 활약을 보인 적이 없다. 현재 상황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손흥민은 올 시즌 분데스리가 전 경기(7경기)에 선발 출전해 4골을 넣었다. 마리오 만추키치(바이에른 뮌헨)에 이은 득점 공동 2위. 손흥민의 활약에 함부르크는 계약 연장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의 계약기간은 2014년 6월까지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통신원 수첩

EPL은 지금 인종차별과 전쟁중

첼시 주장 존 테리(오른쪽)가 영국축구협회(FA)로부터 인종차별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사건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존 테리가 지난해 10월 프리미어리그 경기 도중 안톤 퍼디낸드(QPR)의 항의를 받고 있다.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 후 영국 언론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화두는 '인종차별'이다.

존 테리(32·첼시)가 중심이었다. 존 테리는 지난 시즌 안톤 퍼디낸드(27·QPR)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불거지며 영국축구협회(FA)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거의 매일같이 영국 언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술 더 떠 최근에는 존 테리의 무죄 입증을 위해 증인으로 나선 팀 동료 애슐리 콜(32)이 FA에 대한 비방글을 개인 트위터에 올리며 이슈가 됐고, 전 영국축구협회장 로드 트라이스먼이 BBC와 인터뷰를 통해 존 테리의 징계수위가 낮다는 언급을 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불똥은 잉글랜드대표팀까지 튀었다. 논란 속에 대표팀에서 은퇴한 존 테리의 빈 자리에 대해서다. 잉글랜드는 산마리노와 브라질월드컵 조별 예선리그를 앞둔 상황. 대체 자원들의 경기력을 놓고 연일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전 국가대표 앨런 시어러(42)가 애슐리 콜을 대표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애슐리 콜의 자격 논란이 나왔다.

영국 축구계의 인종차별 문제는 어떠한 것보다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한국 정서와 달리 영국은 폭력과 음주 사고, 섹스 스캔들 등보다 그라운드 위에서의 한 마디 인종차별 발언이 더 심각한 죄로 인식된다. 실제로 이번 사건 이후 존 테리는 자국 내 어느 경기장에서든 90분 내내 심한 야유 속에 뛰고 있다. 한국 선수는 어떨까.

QPR 주장 박지성이 존 테리와 악수를 거부했고, 볼턴 이청용이 인종차별 사건에 연루되면서 국내 언론도 인종차별 문제를 자주 다루는 분위기다. 한국 선수들 역시 언제든 인종차별 사건의 중심이 될 수 있다. K리그에도 용병들이 많아졌다. 얼마 전에는 FC서울 용병 아디의 스폰서 CF 촬영을 놓고 인종차별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렇듯 인종차별은 안전지대가 없다.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런던(영국) | 이지훈 통신원

수원 "서정원·고종수코치와 말춤 추실 분"

수원 삼성이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K리그 경남전 때 '말춤 공연'에 나설 팬을 선발한다. 구단 트위터(suwonbluewings)나 페이스북(Suwonbluewings) 계정으로 '말춤' 영상을 올리면 가장 재치 있는 영상을 선보인 20명을 선발해 서정원·고종수 코치와 하프타임 때 말춤 공연을 펼칠 기회를 준다.

포항, 14일 만원관중땐 100명에게 구단점퍼 선물

포항 스틸러스가 14일 울산 현대와 K리그 홈경기에 만원관중이 입장할 경우 추첨으로 구단 점퍼를 선물한다. 포항은 "스틸야드 정원인 1만7433석을 모두 채워 만석이 될 경우 100명에게 점퍼를 증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당일 만석이 확인되면 구단은 '점퍼'라고 적힌 공을 관중석으로 던져 이 공을 차지한 팬에게 개별 배송할 계획이다.

편집 | 안도영 기자 ydalove@donga.com 트위터@sd_do02